

행함에는 >>>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사랑이 좋아 그 사랑 조금씩 나누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그만 이야기들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설교
그냥 듣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놓칠까봐



FAITH IN ACTION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26

행함

2



2020

스무번째 >>>

하나님과 팔 걸고 행하는
아기 손 크기의 작은 이야기들



성경을
옆에 두어 보세요.
그리고 시간되는 대로
읽어 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힘들 때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달의 행함 킹: 두루미

두루미? 이제 하다하다 할 사람없으니까 새까지 동원시켜 행함킹을 만든다고 기막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천만에. 두루미는 새가 아니고 필자의 직장 동료다. 이름이 여자 같다고? 천만에. 그것도 틀렸다. 60 이 넘은 백발의 남성이다.

이름이 두루미라고 말할 때 한참 웃었다. 중동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한국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자기네 나라 말로는 그게 '고속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다.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만 빼고. 내가 제일 싫단다. 이유는 한가지다. 자기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다.

억지에 못이겨 기름칠을 하고 나면 내 어깨를 다정하게 두들긴다. '하, 내가 어깨 두드림 당할 군번인가?'

그는 내 빼그덕 거리는 휠체어에 기름을 쳐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땅에 태어난 듯 싶다.

어제도 들었다. 그는 꼭 두루미처럼 목이 긴 WD40 통을 들고와 바퀴에 하얀 기체를 칩 칩 뿌려 댄다.

일 주일에 한번은 그의 부서로 가서 기름칠을 해야 되는 압박(?)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 그것을 넘겼다가는 협박, 구슬름, 회유 등 온갖 정신적 괴롭힘(?)에 직면하게 된다.

"돌아봐"
"앞 뒤로 왔다갔다해봐"
"반대쪽으로 돌아봐"

그의 분부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다가 그가 만족한 미소를 보였을 때 나는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다.

그가 기름칠한 휠체어는 그의 이름대로 가는 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버렸다.

사랑은 >>>

작은 행함을 끊임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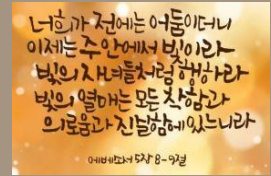
양보
계산대 앞, 앞에서 사람의
물건이 깨 된다. 저걸 다
찍기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적잖이 걸릴 것 같다.
“물건이 하나 밖에
없으시네요. 먼저 하세요.”
그녀가 계산대에서 물러났다.
나는 감사하며 먼저
계산했다.



저분
회사 동료 조보는 마당발이다. 고객이고
직원이고 반기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는 대답없이 하늘을 가리켰다.
저분 때문이라고...

통큰 도네이션
알마가 아동 병원을 돕는
모금함에다가가더니 지폐를
넣는다. 투명해서 다 보이는 데
무려 두시간 정도 일한 만큼의
액수를 집어 넣는다.

인생 짧아
독실한 기독교인, 그는 항상 웃고 항상
명랑하고 항상 활기차다.
“인생 무지 짧아. 그 짧은 인생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항상 웃으며 살아도
부족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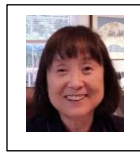
흐미 좋은 것

터키 출신 직장 동료 여성 무꾸다시를 전도했다. 무슬림 신자인데도 선듯 교회에 발길을 들이겠다. 나는 솔직히 좀 우쭐했다. 내가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닌 터키 사람을 전도했고 교회에 오게 했다는 것에 대해. 그런데 전도 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어느 교회 한인 성도들이었다. 그녀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교회를 찾은 적이 있단다. 거기에 있던 한인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던지 훌쩍 반했단다. 내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그 성도들이 다 전도해 놓고 나는 마지막에 숫가락 하나만 얹은 것이다. 아, 자랑스런 한인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

직원 교육 이렇게

한 직원이 참 엉터리로 일을 한다.
매번 일 하는 중에 화장실을
가겠다. 급한가 보다 하고 보내
주었더니 누군가가 귀뜸해 준다.



-유인영기자-

지금 화장실에서 카톡 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약먹으러 가야겠다고 한다. 약 먹겠는데 안보낼
수가 없어서 허락했더니 약을 만들어 먹고 오는지
도대체 나타 나지를 않는다. 겨우 나타나다가 싶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는 15분 쉬는 시간이 되었다며
당당하게 가버린다.

일하러 오는 건지 화장실가고 약먹고 쉬러 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일하는 시간보다 그런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다.

참 많은 생각끝에 이러면 어떨까 하고 지적 대신
다정한 말과 세심한 지도로 접근해 보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어느날 문득 그 무뚝뚝하던 얼굴에서 수줍은 미소를
보게 되었다. 고객에게 웃음을 주는 것도 보았고 내가
힘들어 하는 일이 있으면 쫓르르 달려 와서 도와
주기도 했다. 이제는 아주 급하지 않으면 화장실
가는것도 자제하고 일도 자진해서 이것 저것 잘하고
있다.

아, 바로 이런거지! 기독교인의 직업 의식과 직장의
인간관계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 깨달음이 참 좋다.

원손이 모르게 >>>

기쁜 날

어제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해 왔던 네팔 젊은 부부와
두 아이가 교회에 나왔어요. 아빠가 주일 날 근무하는데 별점 5점이 되면 자동
퇴사가 되는데 주일 날 결근하면 무려 2점이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나왔다는 것은 보통 큰 결심을 한 것이
아니지요. 생전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고 생전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찬양을 박수 치면서 따라서 할 때, 그리고 참으로
진지하게 예배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팔에서는 간호사와 교수로 재직하던 부부가 5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와 임시로 월마트에서 일하면서 저하고 알게 된
것이지요. 원래 힌두교도 들인데 교회를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애기 엄마의 동생이 2, 3년 전에 우리 교회 성탄 예배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좋았다고 집에 가서 자랑을 해 크게 결심하고
교회를 찾은 것입니다. 월마트에서 4년여 동안 가까이 지냈는데
인성 짱, 외모짱, 멋짱. 그래서 누구나 좋아했는데 하나님 찾아
예배드리는 모습은 신장의 모습까지 더하게 되네요.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실족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믿다 천국 가도록 함께 기도해요.



선교 소식: 한국에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직장 동료의 딸이 작년 봄에 한국을 다녀왔다. 너무 좋은 나라라고 또 가겠다고.

한국은 놀랄만한 나라다. 그 놀랄만한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물론 모든 국민이 만들었지만 근대화의 시작의 발판을 놓은 것은 미국 선교사들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들어와 복음과 함께 학교를 지어 교육을 시작했고 병원과 각종 사회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조차도 현명한 한국인들이 국가 발전의 틀로 만들어간 것이다.

당시 선교사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국가들은 아직도 후진국으로 남아있는 나라들이 많다. 이제 우리 차례다.

더러는 가까이 있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딴나라까지 오지랖을 뻗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국이 한국 선교할 때 미국도 어려운 사람들 많았고 그래도 해외 선교지를 넓혀 수많은 국가의 근대화를 이끌어 왔다.

이제 그 바톤을 한국이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목장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가정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각 목장에서는 신교지 한글데스크를 선택해 기도와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1- -이유진기자-

새해를 맞아 첫 나들이에 나섰다.



자동차로 버지니아에서 주경계를 지나 메릴랜드의 한 주립공원을 향해 달렸다.

목적지에 도착하니 전에 없던 입장료를 내라는 안내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멀리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 갈 수 없는 노릇이었다. 입장료를 내려고 크레딧 카드를 기기에 넣었더니 화면에 질문이 하나 떴다. Out of state 와 In state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다.

순간적으로 In state 를 눌렀다. 입장료가 조금 더 저렴할 것같은 이기심이 한 몫을 한 것이다.

그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스쳤다. 의미있는 새해 첫 날부터 거짓말을 하였으니 말이다. 그것도 사람이 아닌 기계 앞에서. 새해를 맞아 기분전환과 새해 구상을 염두에 두고 나섰다가 오히려 꼴꼴한 기분을 맛보게 된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목장과 선교지		
선교지	담당자	선교사
과테말라	김양중	김경택
우간다	강 샘	조이선교회(김진희)
가나	안예림	Chris Insaideo
이집트	구민희	탁수연
탄자니아	노푸른	조병훈
Haiti	강요한	Philipson & Kelsea Georges
CEF		황의정
쿠바		김현진, 장경순

매주 토요일 새벽에는 선교지와 목장을 위해 특별기도를 합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선교는 영적인 면과 아울러 한국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더 넓은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더 나은 국가들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이달의 선교 기도 >>>

힘듭니다. 새로운 환경 때문에 힘들고 아파서 힘들고 생활비가 모자라 힘들고 과한 일 때문에 힘듭니다. 때로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힘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귀한 사명이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 겪으면서 웃으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꽃이 피길 기다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믿음의 황무지에 신앙의 싹들이 돋겠지요?
언젠가 그 척박한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오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열매맺게 하소서.



여기 은공 마음이

작은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기 예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

-강수잔기자-

조잘 조잘. 딸과 시시콜콜 대화를 나눈다.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에서 부터 깊은 신앙의 대화까지. 가장 기쁜 시간이다. 때론 지난 시간 딸을 다 이해 못한 몰이해가 부끄럽기도 하다. 딸을 키우면서 이렇게 야무진 기도를 했었다. '어떤 말도 다 들어줄수 있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내 기대의 눈높이로 인하여 딸은 마음을 닫고 나는 아무말이나 들어줄수 없는 엄마가 된 아픔도 있었다. 바라보는 삶의 가치가 한곳을 향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을때 조금씩 대화가 되기 시작했다. 어디 인생이 내맘대로 되던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딸을 보려한다 내가 아파서 몹시 토한날 내 등을 두드려주며 '엄마 토한 냄새가 전혀 역겹지가 않아, 내가 토했을 때 엄마처럼' 딸은 언제 이렇게 컸을까? 내 생일날 딸이 내 얼굴을 그려서 내게 선물을 했다. '하나님의 딸 나의 엄마' 라는 글과 함께.하나님의 딸 우리딸! 참 많이 컸다. 재롱 부리던 때가 어제 같은 데 언제 이렇게 자라서 친구가 되었는지.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태어나자마자 불가피하게 엄마와 이별을 할 수 밖에 없는 아기들...

누가 이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기 전에 어떻게 살릴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을 먼저 하신 분이 계시다.

바로 오늘 오신 이종락목사님입니다.

그 분을 처음 만난 것은 1997년 한국에서였다. 저는 그때 부목사였고 그 분은 그 때 집사님이셨다.

항상 말없이 교회 정문에서 봉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그리고 헤어졌다.

그 후 약 20년 만에 베이비 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를 방문해서 목사님이 되신 그 분을 만났다.

한 아이 한 아이의 볼을 자신의 볼로 부비면서 이뻐하시는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

그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리고 일주일전에 한국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셨다.

미국에 오신다고..

번개불에 콩구워 먹듯이 집회를 만들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주일 말씀이 기대가 된다.

누가 이 아이들을 돌보아 줄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안형준 목사-

편집 후에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보내고 있다. 가끔씩 매서운 바람이 지나가지만 잠시뿐, 다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다.

눈이 기다려 진다. 한번 쯤 너털너털한 마음 구석구석 하얀 눈을 보며 새하얗게 덮여 보고 싶다. 싸아한 추위 한번 만나고 싶다. 호물호물한 영혼 한구석 퐁퐁 열려버리고 단단한 무언가로 서고 싶다. 그렇게 깨끗하고 단단한 영혼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싶다.

-행함 멤버가 다섯명이다. 어찌 그리 믿음들이 좋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정들이 많으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다.

-행함을 위한 기도 제목 행함 잡지사 설립 저를 포함해 함께 일하시는 편집인, 기자님들 모두 정직원이 되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꿈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공동체교회

별불일은 없지만 해불 일은 많은 교회
Service & Meeting (예배 안내)

Sunday Worship Service (주일)

예배: 1: 30pm

발행인: 안형준목사

편집인: 김양중/강샘

기자: 유인영/ 이유진/ 강수잔

후원
김복성
임재철

www.samguitar.net

아마존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이 사이트로 가세요. 가시면 아마존 광고가 있어요. 아마존 광고에 들어가셔서 물건 구입해 주시면 수익금이 행함으로 들어 옵니다.



14640 Soucy Pl.
Centreville, VA 20120
703)625-3979